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연구

고 훈*

1. 서론
2. 본론
 - 2-1. 작가와 작품에 대해
 - 2-1-1. 이규봉은 누구인가
 - 2-1-2. 작품 소개
 - 2-2. 작품 특성 연구
 - 2-2-1. 타 장르와의 관계
 - 2-2-2. 무협소설적 특성
3.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을 통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라는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장수들의 대결장면이나 계략으로 적장을 사로잡는 대목, 몰락한 가문을 복권하고 보상을 받는 등의 군담소설 요소도 갖추고, 영웅소설의 이야기 단락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소설에서 볼 수 있는 등장인물 활극의 이미지화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무협소설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 전반에 걸쳐 협(俠)이 드러나고, 사용하는 무공의 이름이나 초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특성이며, 또 무협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소림사’를 등장시켜 중국 무술에 대한 전반적인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사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중국 소림사 무술의 기원에 대한 소개도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협소설적 특성으로 인해 「무술원조 중국의 파무협전」이 1930년대 한국 무협소설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남은 과제를 보완한다면 한국 최초의 무협소설이면서 한국 무협소설의 시작임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무협소설, 군담소설, 영웅소설, 역사소설, 협(俠), 소림사)

1. 서론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이진원이 『한국무협소설사』에서 최초로 언급한 작품이다.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소설로 이규봉의 작품이다. 이진원이 언급한 이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진원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중국의 소림사를 소재로 하여 작성된 한국 최초의 현대적인 창작 무협소설이라 해도 틀림이 없다고 보았으며, 김광주의 『정협지』를 본격적인 창작 무협의 기원으로 보는 것과 비교하여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주장하고 있다.¹⁾

지금까지 한국무협소설에 대한 논의에서 김광주의 『정협지』를 ‘최초’ 혹은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 그러나 이진원이 『한국

1) 이진원, 『한국무협소설사』, 채륜, 2008, 98-99쪽.

2) 김재국은 「한국무협소설의 존재양상에 관한 고찰」에서 “우리 무협소설은 1961년 김광주가 『정협지』를 〈경향신문〉에 연재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무협소설사』에서 언급한 이규봉의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시기적으로 볼 때 김광주의 『정협지』보다 대략 30여년을 앞선다. 단순히 시기적으로만 앞선 것이 아닌 무협소설이라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고소설 특히 군담소설의 요소가 상당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재 자체가 무협소설의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군담소설과는 달리 무협소설적 요소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기에 그 자체로 군담소설과의 변별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무협소설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한국에서 무협소설의 시작을 살펴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특성을 통해 작품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한국무협소설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작품이다. 기존 김광주의 『정협지』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무협소설사에 새로운 출발점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기에 여기에서는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분석해 그 속에 담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김재국, 『한국무협소설의 존재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2003, 201쪽. 이치수는 『중국무협소설의 번역 현황과 그 영향』에서 “한국 작가에 의한 창작무협소설도 김광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 이치수, 『중국무협소설의 번역 현황과 그 영향』,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82쪽.

2-1. 작가와 작품에 대해

2-1-1. 이규봉은 누구인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작가는 ‘이규봉’이다. 현재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작가 이규봉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다. 이 작품을 처음 발견한³⁾ 이진원은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근거로 이규봉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연재된 1934년을 전후로 이규봉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본바 크게 두 사람으로 압축된다.

가) 한말 교육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이규봉(1873~1961)

나) 성재 이시영 선생의 장자 이규봉

가)의 이규봉은 작품이 연재된 1934년 당시 61세로 다소 나이가 많고, 중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작가로 보기는 힘들다. 나)의 경우 이규봉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사로 있었기에 중국어 활용 능력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는 이진원이 근거로 제시한 ‘중국인 소학교에서 수십 년간 훈도’를 했다는 중앙일보 기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동아일보 중국말 강습 기사에 이

3) 권혁래, 『한국무협소설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탐색』, 『한국문학과 예술』, 2008, 253쪽.

4) 1932년 4월 17일 자 중앙일보 2면 5단에 〈중앙청년회관에 중국어 강습회〉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강사는 중국인 소학교에서 수십 년간 훈도로 있던 리규봉씨라하며”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진원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연재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동명인의 기사를 통해 이규봉에 대한 추측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기사 속 이규봉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을 썼다는 근거는 없다.

규봉이 이시영의 장자라는 말이 나온다.⁵⁾ 이것을 보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에 언급된 중국어 강습을 하는 이규봉은 동일 인물로 이시영의 장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무술의 원류〉¹⁾에 보면 중국 승려 ‘수송’이 쓴 원서를 근거로 이 소설을 썼음을 밝히고 있음으로 보아 작자는 중국어 활용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저본으로 삼은 중국책을 입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시영의 장자인 이규봉은 ①중국어 활용 능력이 있다. ②만주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기에 중국책을 구입 가능했다. ③신흥무관학교라는 성격과 〈머리말〉에서 밝힌 외세에 항거하기 위해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작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작품이 연재된 시기와 매체를 또한 작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31년 동아일보는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한다. 이는 민족운동의 일환인 ‘힘 기르기 운동’으로 주로 농촌 계몽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규봉은 동아일보 교정부에 재직하기도 했다.⁶⁾ 이런 상황에서 이규봉은 신흥무관학교 교사 출신이었기에 농촌 계몽 운동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기르는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제가 시행한 민족말살 통치기(1931년~1945년)와 맞물려 우리 힘을 길러 정당방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머리말 내용

5) “동관창명녀학교 안에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1개월 반 동안 중국말 강습이 열린다. 선생은 수십년 북 중국에서 중국사람과 가터 생활하던 리규봉씨(성재 리시영의 아들)요 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부터 9시반, 학비는 전과통해 3월이라 한다.” - 동아일보, 1932. 07. 16.

6) 또한 인촌기념회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자료2』(2009. 9.)에 따르면 귀국했으나 일이 없던 이규봉에게 인촌이 동아일보 교정부에 취직시켜 주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근무했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소설을 연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규봉이 동아일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과도 일치한다. 즉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한 동아일보와 동아일보에 재직했던 이규봉, 신흥무관학교 교사였던 이규봉의 성향, 민족말살 통치기의 상황 등이 어우러져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연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2-1-2. 작품 소개

우선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다. 1934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3월 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총 24화로 되어 있으며, 소재목에 따라 〈머리말〉, 〈무술의 원류〉, 〈서무공〉으로 나뉜다.

〈머리말〉에는 공자, 맹자, 율곡의 말씀과 중국의 불가를 예로 들어 육체가 쇠약하면 마음을 밝혀 영성을 보아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규봉은 개인의 환란위급을 구원하고 대중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무고히 남에게 침해할 당할 때 이를 제어하고 자체의 건강과 수명을 유지시켜 주는 방편으로 소림사 무술을 소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험악한 세대에 외계의 폭력이 제 몸에 침범될지라도 정당방위를 할 수 없으면 어찌되겠는가 되물으며 독자들에게 많은 취미와 유익이 있기를 바란다고 작품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다.

〈무술의 원류〉는 2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6회까지 총 5편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 무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소림사 무술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림사의 이야기에 앞서 무술대회와 풍경 묘사하며, 중국에 널리 보급된 무술을 수련해 일흔이 넘도록 고뿔 한번 걸리지 않았다는 직례독군 이경림의 말을 빌려 머리말에서 밝힌 무술수련이 건강과 수명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또 〈무

술의 원류)라는 소제목에 맞게 중국 무술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중국 무술은 외파와 내파로 나누는데 내파는 송나라 때 장삼봉이 만든 무당파를 이룸이고, 외파는 바로 소림파로 달마선사가 기원이 되어 무술가의 조종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가 불도를 닦는 중들의 정신력과 체력이 약함을 보고는 몸이 튼튼해야 영성을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창안한 것이 바로 ‘선천나한권’이고, 이로부터 소림사 무술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호랑이를 길들이는 달마대사의 일화를 통해 불문의 도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본격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서무공〉은 7회에서 24회까지 연재되었다. 소림사 승려인 담종이 이세민을 도와 당나라 건국을 돕는 한편, 원수를 죽여 부모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함께 진행된다. 이야기는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되어 당나라와 정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담종과 왕세충의 원한관계를 설명해 준다. 자세한 줄거리는 단락별로 나누어 각주로 처리하였다.⁸⁾

7) 일반적으로 무협소설에서는 달마대사가 역근경(易筋經)과 세수경(洗髓經)을 통해 소림사 최고의 내공심법과 무공을 만들어 정파 무공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8) 서무공1 : 수나라 문제의 폭정 아래 고생하는 백성들과 포악한 관리들의 악행. 우문 화급이 수양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름.

서무공2 : 수문제 죽음 이후 각지에서 봉기하는 토호세력, 이들 중 왕세충과 이연의 세력이 천하통일을 놓고 대결함. 담종이 이세민을 찾아와 돕기를 청함.

서무공3 : 담종을 선봉으로 삼아 진격해 맹진성에 이르러 진을 치고 정나라 모남과 대치함.

서무공4 : 모남과 담종이 대결함. 모남이 담종을 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다음날 정지절이 모남과 대결함. 위기에 처한 정지절을 담종이 구하고 모남을 사로잡아 맹진성을 함락시킴.

서무공5 : 맹진성이 함락되자 왕세충은 맹장 단강을 출전시키고 단강과 정지절이 대결함.

1930년대 당시 번역 및 변안소설이 상당수 존재했던 상황에서 이 작품의 순수 창작 혹은 변안·번역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무협소설이라는 전제하에 순수 창작이라는 점이 밝힐 수 있다면 한국무협소설사에서 최초의 창작무협소설이라는 이 름표를 달 수도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술원조 중국외

서무공6 : 정지철이 도망가고 담종이 나서서 단강을 막음. 이세민이 단강을 귀화시키려하나 실패함. 단강이 소년 장수 장걸과 대결해 승리함.

서무공7 : 이에 분개한 진경이 나서서 단강과 대결함. 진경이 위급해지자 정지철이 개입해 막음. 며칠간 단강을 당하지 못하고 당나라 장수만 죽음. 이에 담종이 나서서 대결하나 승부가 나지 않음.

서무공8 : 승부를 내지 못하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는 중에 단강이 비겁하게 담종의 뒤에서 활을 쏘. 담종은 금종조 수법으로 화살을 튕겨냄.

서무공9 : 이를 본 단강은 기세가 꺾임. 담종과 단강의 재대결이 시작됨.

서무공10 : 담종이 말뼨으로 들어가는 재주를 부리며 화산을 쪼개는 가장 독한 소림사 주먹법으로 단강을 말에서 떨어뜨림. 밧줄 묶는 병사들이 단강을 사로잡음.

서무공11 : 단강의 부대가 패하자 왕세충도 항복 표문을 보냄.

서무공12 : 항복 표문을 거부하고 공격하자 왕세충도 반격함. 담종이 밤에 홀로 성벽을 넘어가 왕세충을 납치함.

서무공 13 : 적군은 항복하고 왕세충을 죽임.

서무공14 : 진왕은 단강을 등용하고자 하나 단강은 진왕을 죽이려 하다 실패하고 자살함. 진왕은 담종을 국사로 임명하려 하나 담종은 사양하고 소실산으로 돌아감. 진왕이 담종을 호국선사로 삼고 척호사를 소림사로 고침.

서무공15 : 후세 사람들이 담종을 서무공이라 일컬음. 담종의 아버지 서측현이 가보로 내려오는 백옥사자 한 쌍을 소유하고 있었음. 왕세충이 이 소문을 듣고 탐내 이를 요구함. 왕세충의 요구를 거절한 서측현은 감옥에 갇히고, 담종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백옥사자 하나만 가지고 왕세충을 찾아감.

서무공16 : 백옥사자가 한 쌍이 존재함을 들키고 이를 모두 탐낸 왕세충은 서측현을 모질게 고문해 서측현이 죽음. 서측현의 부인도 마음의 병을 얻어 죽음. 담종은 부모의 복수를 위해 무술을 배웠으나 왕세충의 집 호위가 삼엄해 시도하지 못하고 술집에서 울분을 달랠.

서무공17 : 술집에서 소림사 중 지은을 만나 무술을 전수 받기로 함.

서무공18 : 소림사에 귀의해 각종 무술을 배우고 이세민을 도우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세상에 나감. 이세민을 도운 후 담종선사의 명망을 듣고 중과 청년들이 소림사로 몰밀듯 들어감.

파무협전』은 변안소설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무술의 원류〉에 보면 “이 소설에 근거한 원서의 작자 수송이란 중의 말에”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원서의 제목은 『소림기협전』이다. 그러나 제목과 간략한 서지사항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했다.¹⁰⁾ 또한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저자를 밝힐 때 저(著)나 작(作)을 쓰는데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술(述)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을 순수 창작물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머리말〉의 내용 등으로 보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독자들로 하여금 육체를 단련해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환란위급을 구원하며 외세에 항거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규봉이 수송화상이 쓴 『소림기협전』을 변안한 것으로 보인다.

2-2. 작품 특성 연구

2-2-1. 타 장르와의 관계

여기에서는 다른 장르들과의 비교를 통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이 될 타 장르들은 군담소

9) 한국 무협소설사에서 한국 최초의 창작 무협소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육홍타는 『시장 측면에서 본 한국 무협소설의 역사』에서 “1969년 초에 출간된 『뇌검(雷劍)』은 한국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작품이라고 내놓은 최초의 무협소설이기도 하다. (중략) 아쉽게도 닌자(忍者)가 등장하는 일본의 사무라이소설을 변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 육홍타, 『시장 측면에서 본 한국 무협소설의 역사』,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126쪽.

10) 『소림기협전』은 수송이 쓴 작품으로 전 5권이다. 출판시기는 대략 1928년에서 1937년 사이로 보고 있다. 북경대학교 도서관에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국에서도 경매를 통해 유통되는 희귀본이었다. 경매 사이트에서 이 책의 존재 유무와 대략적인 서지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 영웅소설, 역사소설이다.¹¹⁾

작품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는 고소설 특히 군담소설의 요소가 상당부분 남아 있었다. 특히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 등장하는 장수들의 대결 장면이 군담소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먼저 싸움을 시작하기 전과 처음 대결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대체로 군담소설의 경우 양쪽 군사들이 서로 진영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끝내면, 한 쪽 진영에서 장수가 말을 몰고 나와 자신의 관등성명을 대며 일대일 대결을 요청한다. 적장의 도발에 상대편 장수가 나오면서 대결이 시작된다. 그 중 한 쪽이 열세를 느끼고 달아나거나 혹은 죽는다. 달아나는 경우에는 뒤쫓아 오는 장수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급박한 상황에 같은 편 장수가 뛰쳐나와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대신 싸움을 이어한다. 장수가 죽는 경우 복수를 하기 위해 다른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이어 한다.

단강은 팔이 얼씩지근하야 지질의 힘이 썸을 알고는 역시 힘을 주어 그세 머리 독기질을 막으면서 되돌려 쳤다. 이렇게 두 사람이 십여번 싸우더니 지질이 기운이 부쳐서 숨이 헐떡헐떡하며 전신에 구슬땀이 비오듯하매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그만 말을 돌려 채를 쳐 도망질 하였다. 그럴수록 단강은 뒤를 쫓아 달려갔다. 거진 잡힐만 할 쯤에 담중이 썸 나서서 가루막고 한바탕 서로 돌격하다가 각각 쟁을 쳐 군사를 거두었다.¹²⁾ (밑줄 인용자)

“너희들 중에 이 척극한을 당할 장사가 있거든랑 즉시 나와서 대적해 보라.”
(중략)

11) 군담, 영웅소설은 당대까지도 독자들에게 향유되던 장르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역사소설의 경우 연구대상이 연재될 당시 성행하던 장르로 연구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비교대상이라 판단했다.

12)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12, 『동아일보』, 1934. 2. 17.

싸움은 비로소 시작되어, 양쪽 진영에서는 이 서전의 영광을 피차 자기편에 끌어들이려고 무척 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싸움은 몇 합도 가지 않았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옆에서 보는 눈에 하얀 칼날이 번쩍하고 튀는 듯하였다. 그와 동시에 주선우의 머리가 호박 덩이처럼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것을 보고 명나라 진에서 또 하나 장수가 급히 내달아 왔다.

“척극한 이놈아!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최상정의 칼을 받아라!”

새로운 장수는 이렇게 입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질렀으나, 척극한은 조금도 도망칠 생각이 없이 서 있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용감한 적병의 장수는 한 걸음 앞질러 최상정의 머리를 방금과 똑같이 멋지게 베어 버렸다. 다음으로 명진에서는 왕공령이 커다랗게 호령하며 나왔다. (중략)¹³⁾ (밑줄 인용자)

“나는 선봉장 강백이라. 적장은 빨리 나와 목을 늘이여 나의 날랜 칼을 받으라.”
(중략)

십 여 합에 이르러 승부를 못 결단하는지라. 양장의 검술을 보니 강백의 칼이 날래어 길대에서 배나 더하나 힘은 길대만 못하거늘 원수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칼을 들고 진문 밖에 내달아,

“반적 위길대야 너는 반국지적(反國之賊)이라. 승천 입지(昇天入地)하여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냐?”

하고 호통을 지르며 달려드니 길대 또한 격분하여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맞아 싸워 한 합이 못 하여 원수의 칼이 번득하며 길대의 머리 말 아래에 떨어지니 창으로 질러 문기 위에 달고 좌충우돌하니 그 날래이 비호 같더라.¹⁴⁾

두 번째는 대결 도중에 혹은 계속되는 무승부에 피를 내어 승부를 내는 경우다. 주로 상대방 장수는 용력(勇力)이 센 장수이나 피는 부족한 인물로 묘사된다. 피를 내어 거짓 퇴각을 하고 이를 추격하는 장수는 함정에 빠져 사로잡거나 죽는다.

담종도 역시 기문 안으로 들어와서 진왕을 보고 연해 말하되

13) 구인환 엮음, 『유충렬전』, 신원문화사, 2004, 89~90쪽.

14) 구인환 엮음, 『조웅전』, 신원문화사, 2004, 157~158쪽.

“그놈이 과연 역세니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겠은 즉 아마 피로 써 잡아야 되겠 습니다”

“대사가 오래싸와 곤하신테니 오늘은 쉬시고 내일 오시오싸

“소승이 이미 허락하였은 즉 실신할 수 없습니다”

담중은 진왕의 말림을 듣지 않고 점심을 잔뜩 먹은 뒤에 짚앵이를 꺾구로 잡고 진전에 나갔다.¹⁵⁾ (밑줄 인용자)

원수 또 진전에 나서 일대를 보니 구척 장신에 쇠금 철갑을 입고 수업을 두 자가 넘고 눈은 셋별 같은 지라. 원수 강백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 나아가 대적하라.”

하며 말하기를,

“적장을 보니 분명 거짓 패하여 달아날 것이니 부디 따르지 말라.”

백이 청명하고 내달아 접전하여 삼십 여 합에 승부를 결단하지 못하다가 문득 일대 거짓 패하여 달아나거늘 강백이 크게 소리하고 창을 두르며 쫓아 적진 앞에 다다르니 일대 진무에 들며 좌우편 군사 인도하여 들어가거늘 백이 오래 횡행하며 꾸짖어 욱하다가 본진에 돌아와 원수께 고하기를,¹⁶⁾ (밑줄 인용자)

이때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제장을 불러 말하기를,

“적장 일대는 범상한 장수 아니라, 간대로 잡지 못할 것이니 명일은 강백이 나아가 싸워되 적장과 접전하여 날이 저물거든 그대 먼저 거짓 패하여 적진에 들면 군사 분명 저의 장수인가하여 무슨 일을 행할 것이니 내일은 저의 비계(秘計)를 명백히 알지라.”

하고 은밀히 의논하니라.

(중략)

하고 달려들어 싸워 삼십 합이 되도록 불결 승부러니 날이 저물거늘 백이 거짓 패하여 적진 중으로 달려드니 적진 군사 저의 장수만 여겨 내달아 말을 이끌고 원편으로 인도하여 장대로 모시거늘 일대 대경하여 강백을 쫓아 본진으로 달려드 니¹⁷⁾ (밑줄 인용자)

15)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진』 14, 『동아일보』, 1934. 2. 19.

16) 구인환 엮음, 『조웅전』, 신원문화사, 2004, 174~175쪽.

17) 구인환 엮음, 『조웅전』, 신원문화사, 2004, 176~177쪽.

마지막으로는 전공(戰功)을 세운 주인공에게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고 보상을 하는 대목이다. 군담소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고소설의 경우 마지막에 보상을 받고 자자손손 잘 살았다는 결말을 맺는다. 또 몰락한 가문이 복원되고, 벼슬을 받는다.

“그가 이미 풍진에 잇기를 싫어할 진댄 담종을 봉하여 호국선사(護國禪師)를 삼고 척호사를 다시 소림사라 고치고 칙서(勅書)를 내려 위로함이 좋을 듯 합니 다”¹⁸⁾

진왕은 즉시 당고조에게 아뢰어 그대로 하게 하고 또 옥토 사백묘(畝)와 집 한 채를 주어 소림사 재산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이 담종을 서무공(徐武公)이라 일컬음도 잇었다.¹⁹⁾

천자는 황성 동문의 인가를 죄다 혈어 별궁을 짓게 하고, 직첩을 돋우어 산동 육국에서 들어오는 결충은 모두 다 연황에게 붙이고, 충렬에게 남평·여원 양국 옥새를 주어 남한 오국을 차지하게 하고, 녹을 붙였으며, 대사마 대장군 겸 승상 인수를 주어 국중 만사를 모두 다 맡겨 슬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니, (중략)²⁰⁾

이날 황제 황극전에 전좌하시고 태평연을 배설하여 출전 제장을 차례로 공을 쓸새 조원수로 변왕을 봉하시고, 그 부인 장씨로 정숙왕비를 봉하시고, 원수의 외숙부 왕태수로 우승상을 하이시고, 강백의 부로 좌승상을 하이시고, 강백으로 재사 마 겸 대원수 태학사를 하이시고, 그 남은 제장은 차례로 공을 쓰실새 하나도 부족다 할 이 없더라.²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담소설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의 중심인 〈서무공〉의 단락 구조를 보면 영웅소설의

18)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20, 『동아일보』, 1934. 2. 25.

19)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21, 『동아일보』, 1934. 2. 26.

20) 구인환 엮음, 『유충렬전』, 신원문화사, 2004, 207쪽.

21) 구인환 엮음, 『조웅전』, 신원문화사, 2004, 186~187쪽.

기본 단락 구조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영웅소설은 '탄생 - 고난 - 수학 - 입공 - 혼인 - 부귀영화'의 단락 구조를 지니고 있다.²²⁾ 〈서무공〉에서 이 기본 구조를 찾아보면,²³⁾ '탄생'의 경우 영웅소설에서처럼 신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탄생하는 대목은 없지만 밤에도 불을 켜지 않고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안광을 내는 백옥사자 한 쌍을 소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탄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백옥사자 한 쌍으로 인해 부친이 죽고 이어 모친도 죽는 상황은 '고난'에 해당한다. '수학'의 경우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소림사 승려 지은을 만나 금종조, 철포삼, 공수입백인, 독문장법 등의 소림사 무공을 배우는 대목이 나온다. 당나라 이세민을 도와 정나라 왕세충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호국선사가 되는 부분은 '입공'에 해당한다. 주인공이 승려인 관계로 '혼인'의 단락은 나오지 않는다. 옥토사 백 묘와 집 한 채로 소림사 재산을 삼고, 담중선사의 명망을 듣고 사방의 중과 청년들이 몰릴 듯 소림사로 들어왔다는 대목은 '부귀영화'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서무공〉의 기본적인 이야기 골격은 결국 고소설 중 영웅소설의 기본 단락 구조와 일치한다. 이점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또한 영웅소설의 기본 단락 구조를 지님으로써 독자들로부터 흥미를 끌 수 있는 일종의 '대중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당시

22) 임성래는 『영웅소설의 유형』에서 연구 대상인 「영인고소설 판각본 전집」에 수록된 총 18종의 영웅소설을 각 작품의 단락 전개과정에 따라 비교표를 만들었다. 그 비교표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1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각 작품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했는데, 이 표에 나타나는 공통 단락을 살펴보면 영웅소설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단락은 '탄생', '고난', '수학', '입공', '혼인', '부귀영화'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23) 〈서무공〉에서 '탄생 - 고난 - 수학 - 입공 - 혼인 - 부귀영화'의 단락 중 나오지 않거나 약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이 구조와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문사들이 경영합리화를 구실로 이윤추구를 앞세워 대중의 기호에 맞는 재미있는 소설을 쓸 것을 요구했던 것과도 관련을 지을 수 있다.²⁴⁾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시대 영웅소설, 군담소설과 같은 고소설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이야기 구조였을 것이며, 중국 무술이라고 하는 낯설지만 흥미로운 소재를 채택했다는 점에서도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에 연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

역사소설은 1920년대 전반기에 형성되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광수, 김동인, 홍명희, 박종화 등 많은 작가들의 여러 작품으로 인해 넓은 독자층을 형성했다. 특히 1930년대 역사소설은 기존의 군담, 영웅소설과는 달리 추격, 격투, 살인으로 이어지는 활극을 통해 그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²⁵⁾ 여기에서는 윤백남의 『대도전』을 그 비교대상으로 정했다. 『대도전』 역시 주인공의 활극을 다루고 있다. 아래 인용문을 보면 주인공 무룡의 활극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 광경을 본 순간에 무룡의 머리는 평정을 잃었다.

“이 이놈아”

무룡은 품에 지녔던 단검을 빼들고 번개가터 뒤스문으로 뛰어나갔다. 화순호 후갑판에는 이제 일사대 활극의 막이 열렸다. 무룡이 아귀와 가튼 본격한 얼굴로 소리를 질리며 단검을 들고 내딛는 기세에 란영을 끼어 안앗던 도적은 계급을 아프로 밀어박치고 적당한 무기를 차랐다. (중략)

무룡과 도적은 서로 불스길 가튼 숨을 토하면서 잠시 틈을 엿보다가 도적이 “익” 소리와 함께 장사대를 아프로 힘껏 잡아다리매 무룡의 몸은 그 틈을 타서 도적의 가슴을 바라보고 총알가터 뛰어드렸다. 도적은 장사대를 버리고 허리를

24) 김창식, 『1930년대 한국 신문소설의 존재방식 - 최서해의 〈호외시대〉를 중심으로〉,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34쪽.

25) 김종수, 『역사소설의 발흥과 그 문법의 탄생』, 『한국어문학연구』 제5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98쪽.

굽혀 무릎의 허리를 힘껏 내질렀다. 굳센 주먹에 질린 무릎은 두어거름 뒤로 비를거리 자빠지려는 몸을 바로잡자마자 달려드른 도적 외손에 칼드른 손을 잡혔다. 두 고기스덩이는 한 자투의 단검을 중심삼아 업치락 뒤치락 잠시 숨이 막힐 듯한 격투를 하더니 도적의 몸이 무릎을 타고 안게되자 두손으로 무릎의 숨통을 잘으려 했다.²⁶⁾

이러한 주인공의 활극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때에 담중은 “허어 에꾸머니”하고는 “탁”하고 나가 잡아짓는데 쫓쟁이는 역시 사오길 밖에 나가 떨어졌다. 단강은 옳다구나 하고 말을 달려가서 칼귀로 찍으려 하였다. 그러나 귀신이 곡을할 노릇은 담중이 간 곳이 없어 헛탕을 잡은 것이다. (중략) 이는 담중이 단강의 칼귀가 내려올때에 벌서 말배땀이 밀로 들어가서 두손으로 말 앞발을 꼭쥐고 두발로 말 뒷다리를 버티었으니 그 말이 어떻게 움죽어릴수 있으랴. 단강은 그때야 담중이 말 배 밑에 있음을 알고 몸을 굽혀 칼귀로 치려하였더니 별안간 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을 꿇으면서 함부로 뛰므로 하마터면 단강이 떨어질번 하기를 여러번 하였다. 그러다가 담중은 적수공권으로 회리바람과 같이 말 앞뒤로 덩굴르매 단강은 말을 뺨을 돌리면서 사면으로 정신 없이 한참동안 치려하였으나 치지는 못하였다. 별안□ □중은 가슴께로 합장을 하고 □□더니 손까락 끝으로 단강의 턱주가리를 치려하는데 빨리기가 번개 같았다. 단강은 미처 칼귀로 막을 새가 없어서 몸을 잡타드리어 피하였다.²⁷⁾

주인공의 활극을 생동감있는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대도전』과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공통점을 지닌다. 1930년대 역사소설은 기존의 군담·영웅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극의 이미지화를 통해 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했고, 이는 신문이라는 특수한 매체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즉 ‘다음호에 계속(단절기법)’이라는 신문소설의 특성을 이용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활극이 다음호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이

26) 윤백남, 「대도전」9, 후편1, 운명의 첫길, 『동아일보』, 1931, 1, 9.

27)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16, 『동아일보』, 1934. 2. 21.

다. 『대도전』과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모두 1930년대 신문연재소설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대도전』에서는 무술을 배움에 있어서 체술(體術), 노푼데서 뛰어나리는 법과 노푼데로 뛰어 올르는 법, 권술(拳術), 남의 눈에 띄우지 안코 옥내에 잠입하는 술법과 의복으로써 눈을 속이는 비법과 적에게 쫓기어 은신도 주하는 묘법 등으로 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무공이름과 초식명을 밝혀주고 있는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군담소설, 영웅소설, 역사소설과 비교를 통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았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당대까지 지속적으로 향유하던 군담소설의 장수대결 장면과 행복한 결말의 요소를 지니고, 영웅소설의 기본 단락 구조를 지녔기에 당대 독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또 당시 성행했던 역사소설의 특성인 주인공 활극의 이미지화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군담·영웅소설과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은 군담·영웅·역사소설의 특성을 모두 지닌 작품인 동시에 기존의 군담·영웅·역사소설이 지니지 못한 무협소설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무협소설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지닌 무협소설로서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2-2. 무협소설적 특성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무협소설적 특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무협소설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무협소설의 범주를 정하고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 나타난 무협소설적 특성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보는 『무협소설개관』에서 행협 주제인 협(俠), 행협 수단인 무(武), 행협 배경인 강호, 서사구조를 무협소설 구성원리로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 협은 민족영웅, 자유투사, 유랑자, 강자(强者), 지자(智者), 복수자, 연인으로 나뉘며, 무는 무공 겨루기 묘사, 무공 초식 설계의 발전, 병기 사용 능력, 내공의 도입으로 나누고, 강호는 힘준한 고개나 막다른 계곡·깎아지른 벼랑·산굴, 사막·변경·외딴 섬, 절·도관·산채나 장원으로 나뉜다. 또 서사구조는 15개의 장면이 순환되어 사용되고,²⁸⁾ 작품의 주제에 따라 인물이나 내용이 바뀔 뿐이라 하였다.²⁹⁾

무협소설 구성원리의 첫째 조건인 ‘협(俠)’이다. 양우생은 무협소설에서 협(俠)이 영원히 첫 번째이고 무(武)는 영원히 두 번째라고 평가하였다.³⁰⁾ 협이란 다른 사람들의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각오로 임하는 것으로, 무협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뛰어난 무공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무는 협을 행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 가운데 협이 보이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무를 빌어 협을 적는다.”라고까지 말한다.³¹⁾ 이러한 협이 존재해야 비로소 무협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서의 협은 대의(大義)

28) 15개의 장면은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원수에게 살해당한다. 2. 유랑한다. 3. 제자가 되어 입문한다. 4. 무예를 배운다. 5. 복수를 하러 떠난다. 6. 사랑에 빠진다. 7. 좌절당한다. 8. 다시 (상승)무예를 익힌다. 9. 애정에 번고가 생긴다. 10. 부상을 입는다. 11. 상처를 치료한다. 12. 보물을 얻는다. 13. 악당을 소탕한다. 14. 대업을 완성한다. 15. 은거한다.

29) 정동보, 『무협소설개관』,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16~34쪽.

30) 김재국, 『디지털 시대의 한국 창작 무협소설에 관한 고찰』,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169쪽.

31) 진평원, 『친고문인협객봉』(북경:인민출판사, 1992년), 106쪽.(정동보, 『무협소설개관』,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23쪽, 재인용.)

로 발현된다. 수나라 양제의 통치 하에 세상은 어지러웠다. 호가호위하는 관리들로 인해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다. 심지어 마숙모라는 운하 건설 감독은 어린아이를 잡아 먹기도 한다. 양제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다. 우문화급의 3일 천하를 비롯 각지에서 군웅이 일어나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주인공 담중은 소림사에서 닦은 무술실력을 바탕으로 이세민을 도와 당나라 건국에 도움을 준다. 이는 양우생이나 김용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김용의 『사조영웅전』 주인공 광정은 송나라를 침입한 원의 군대에 맞서 강호의 무림인들과 연합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 이는 어지러운 세상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서는 ‘민족영웅’의 모습이며 동시에 평화와 정의를 위해 나서는 ‘자유투사’의 모습인 것이다. 이외에도 소림사에서 무술을 갈고 닦은 강자(强者), 부모의 복수를 하는 복수자, 공을 세워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를 버리고 다시 소림사로 돌아가는 유량자, 피를 내어 적장을 사로잡는 지자(智者)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주로 신파무협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구파무협에 가까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은 무(武)이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무공 겨루기 묘사’와 ‘무공 초식 설계의 발전’ 양상은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오히려 1930년대 한국 무협소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먹질, 다릿질, 칼 쓰는 법, 짚앵이법, 칼퀴법 등과 같이 쓰기도 하고, 이것을 다시 현대적 무협소설처럼 무공이나 무술 이름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십팔수 주먹질하는 법’처럼 쓰기도 하고 ‘십팔수 주먹질하는 것을 선천나한권이라 이르니’처럼 무술 명칭을 적기도 한다.³²⁾

32) “즉시 몸을 튼튼히 하는 법을 세워 여러 제자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에 연습케 하였으

두 다리는 천만리를 멀다아니 여기어 널래기는 제비와 같고 단단하기는 쇠스덩이와 같아야 아모리 높고 높은데라도 올라 가지 못함이 없으며 다니는데는 발자취가 없거나 소리가 나지아니하며 화살과 칼날이 와서 치드라도 조금도 상한 흔적이 없으며 발이나 손으로 바위를 눌르면 자죽이 박히며 심지어 손가락으로 공중을 향하여 치겨들면 앞에 잇는 사람이 닳지도 았엇지만 즉살하지 않으면 중상을 당하게 하므로 혼자서 능히 천명이나 만명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³³⁾

위에서 언급하는 ‘두 다리는 천만리를 멀다아니 여기어 널래기는 제비와 같고’는 이른바 경공(輕功)을 설명하는 것이며, ‘단단하기는 쇠스덩이와 같아야는 ‘철포삼과 같은 무공을 말하고, ‘발이나 손으로 바위를 눌르면 자죽이 박히며’와 같은 모습은 김용의 소설 속에서 바위에 자국을 내어 바둑을 두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 본 당진 장수 진경은 골이 나서 역시 창을 두르며 달려나가서 아모말 없이 금룡이 바다로 들어가는 법으로 바로 가슴을 찢었다. 단강은 칼퀴를 가루잡어 안은 범이 산으로 돌아가는 법으로 창을 막고 되돌러 회로바람이 물을 뿌리는 법으로 칼퀴를 휘둘러 치며 진경도 즉시 막고 다시 풀을 헤치고 배뎁을 찾는 법으로 단강의 말 배뎁이로 찢러 들어갔다.³⁴⁾ (밑줄 인용자)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룡이 바다로 들어가는 법’, ‘안은 범이 산으로 돌아가는 법’, ‘회로바람이 물을 뿌리는 법’, ‘풀을 헤치고 배뎁을 찾는 법’을 무협소설 식으로 바꾸면 ‘금룡입해(金龍入海)’, ‘과호등산(跨虎登山)’, ‘선풍살수(颯風撒水)’, ‘발초심사(撥草尋蛇)’ 정도가 되겠다.

니 이는 곧 십팔수 주먹질하는 법이다. 이 십팔수 주먹질하는 것을 선천나한권이라 이르니 곧 천신이 하는 바 주먹질법이란 뜻이다. -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진』4, 『동아일보』, 1934. 2. 6.

33)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진』1, 『동아일보』, 1934. 2. 2.

34)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진』13, 『동아일보』, 1934. 2. 18.

당진중 정지절이 눈 밝게 먼저보고 “대사님은 적인의 화살을 조심하시오” 소리를 질렀으나 말이 끄치기 전에 화살은 벌써 담종의 뒤통수에 부딪혔다.

그때 당진장졸은 모두 “저를 어찌나?” 발을 굴르며 떠들었다.

뉘 알었으랴 어둑한 중 다시 보매 화살은 한길 밖에 나가 떠러졌고 담종은 연전히 활갯짓하면서 오다가 “단장군은 작란을 마시오 만일 소승의 머리가 아니더면 벌써 당신 화살에 구멍이 평 뚫어졌겠소” 단장을 돌아다보고 놀랐다.

-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14, 『동아일보』, 1934. 2. 19.

담종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안 정나라 장수 단강이 진영으로 돌아가는 담종의 뒤통수에 화살을 쏘는 장면이다. 죽을 줄로 알았던 담종이 ‘금종조(金鐘罩)’라는 무공을 사용해 화살을 튕겨내는 장면으로 ‘금종조’³⁵⁾라는 무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강은 미처 칼귀로 막을 새가 없어서 몸을 잡타드리어 피하였다. 그러므로 담종은 찢러려던 손가락을 멈추고 다시 몸을 반공으로 솟으면서 단강의 머리 위로 되돌아 찍어내리었다.

이는 이른바 홀로 화산을 찍애는 법이니 소림사 주먹법에 독특한 것으로 가장 독특한 것이다. 단강은 어마뜨다하여 갖가스로 머리를 돌려 피하였다. (말줄 인용자)

-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16, 『동아일보』, 1934. 2. 21.

반면에 “단강도 역시 배불리 먹고 말을 바꾸어 타고 나와 담종을 보더니 덮어 놓고 칼귀로 팍 질렀다. 이는 이른바 송호귀소(送虎歸巢)니 칼귀법에 가장 흥녕한 것이다. 그러나 담종이 어찌 그런 법을 모르랴? 얼뜬 보고 몸을 죽크려 말 뱃덕이 속으로 들어가 피하고 뒤미쳐 튀어나와서 두발을 솟어 뛰어 전신이 반공으로 솟고 두손으로 짚앵이를 휘둘러 대갈이를 찌개내리니 이것도 짚앵이법 중에 살수인 뇌침벽목(雷針劈木)

35) 24편에 금종조는 ‘머리를 쇠두겁 쓴 것과 같이 칼날이 튕겨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현재 소림사 72절에 중 하나로 점차적으로 몸에 강한 충격을 주어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육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무공이다.

이다.”³⁶⁾ 와 같이 직접 초식의 명칭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24회 마지막 편에서는 담중이 지은에게 4, 5년 동안 배운 소림사 무술을 나열하면서 그 무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한다.³⁷⁾ 이러한 점은 무협소설이라는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동작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초식명으로도만 전달하기도 하며, 무술이나 무공이 어떤 수법인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또 “손가락으로 공중을 향하여 치거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맞지도 않았지만 즉살하지 않으면 중상을 당하게”라고 묘사하는 부분은 ‘장풍’이나 ‘지풍’을 설명하는 것으로 ‘내공의 도입’을 보여준다. 내공(內功)은 만칭의 협의소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³⁸⁾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 이르러서는 미약하게나마 내공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벽을 타는 수법³⁹⁾이나 점혈을 통해 혈관을 막아 사람의 움직임을 제

36)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14, 『동아일보』, 1934. 2. 19.

37) 지은 선사를 따라 소설산으로 들어가서 중이 되어 법호를 담중이라 짓고 내리 四五년을 지은의 마음껏 가르침을 받으며 전신을 고양이처럼 날신 날신하게 하는 것과 쇠꼬챙이처럼 뾰뾰하게 하는 것과 금종조(金鐘)라 하는 것 머리를 쇠두검 쓴 것과 같이 칼날이 튀게 하는 것과 철포삼(鐵布衫)이라는 것 전신이 쇠옷을 입은 것처럼 시석이 와서 상치 못하게 하는 것과 맨 주먹으로 칼날쥐은 사람을 당해내는 공수입백인(空手入白刃)법까지 다 배워 여러 동화 중에 가장 뛰어났었다. 그때 가서는 지은이 담중의 전심해야 배움을 기특히 여겨서 소림사 안에서 극비밀로 남에게 잘 전하지 않은 독문장법(獨門杖法)이라는 것 몸을 공중으로 솟아 적의 머리를 깨트려내는 독한 법까지 다 가르쳐 주었는 것이다. -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24, 『동아일보』, 1934. 3. 1.

38) 정동보, 『무협소설개관』,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20쪽.

39) “그날 밤 삼경에 담중은 꼭 끼인 옷을 바꾸어 입고 킁킁한 데로만 살살 가서 성밑에 이르러서는 등으로 성벽에 붙어서 한 두 번 솟으며 성위까지 삼분 올라갔다. 이런 법도 소림사에서 특별히 비전하는 것이다. ” -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18, 『동아일보』, 1934. 2. 23.

이는 일명 ‘벽호공(壁虎功)’이라 하는 것으로 벽호(도마뱀)가 벽을 타는 것처럼 벽을 오르는 방법으로 현대 무협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무공이다.

한하는 방법⁴⁰⁾ 등 현대 무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무공들이 나온다.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는 계곡이나 벼랑, 굴(屈), 사막, 고도(孤島)등의 배경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대신 무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또 무협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소림사’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무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중국 소림사 무술의 기원에 대한 소개를 한다는 점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지닌 특성이라 하겠다.

그리고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부모가) 원수에게 살해당한다, 유랑한다, 제자가 되어 입문한다, 무예를 배운다, 복수를 하러 떠난다, 악당을 소탕한다, 대업을 완성한다, 은거한다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5개의 서사구조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있어 핵심 구조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누락된 부분을 살펴보면 ‘애정’과 관련된 부분과 ‘죄질’·‘재기’·‘보물’과 관련한 구조로 ‘애정’의 경우 신파무협이 아닌 이유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부분 또한 이야기를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이기에 없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협(俠)과 무(武), 배경으로서의 강호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무협소설로서의 구성원리를 대부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대의(大義)로 발현되는 협(俠)과 ‘무공 겨

40) 답종은 바로 그 방으로 들어가서 두 손가락으로 왕세충의 어깨를 꼭 눌렀다. 지금 같으면 최고급 유술가에게 점혈(點穴)을 당한 것처럼 왕세충은 즉시 정신을 잃고 꼼짝 못하였다. (중략) “그런데 왕세충은 잠든 것도 같고 취한 것도 같은데 정신만 못차리닌 이 무슨 까닭이오?” 진왕은 의심이 나서 물은 것이다 “소승이 점혈법을 써서 그 혈관을 막은 까닭이오니 다시 샅려 놓겠습니다” -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18, 『동아일보』, 1934. 2. 23.

루기 묘사'·'무공 초식 설계의 발전' 그리고 소림사의 연원 소개는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무협소설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3. 결론

지금까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의 작가 및 작품 전반에 걸친 내용과 타 장르와의 변별점 그리고 작품이 지닌 무협소설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의 저본이 된 원작을 밝힘으로써 창작이 아닌 번안소설임을 확인했다. 또 작품분석을 통해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작품 구성에서는 영웅소설의 기본 이야기 단락 구조를 지니고, 군담소설의 전쟁 장면을 보여주며, 동시에 당대 역사소설이 추구한 등장인물의 활극을 통한 강렬한 이미지화를 통해 군담·영웅소설과의 차별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만의 특성으로 작품 전반에 걸쳐 무공 겨루기 묘사와 무공 초식 설계의 발전 등을 활용해 대의(大義)로 발현된 '민족영웅'·'자유투사'·'유량자'·'강자'·'지자'·'복수자'로 묘사된 협(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로써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이 무협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 최초의 중국식 창작 무협소설'이라는 평가를 '중국식 번안 무협소설'로 수정해야 함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무협소설'이자 '한국 무협소설의 시작'이라고까지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한국 최초의 무협소설'·'한국 무협소설의 시작'이라는 부분은 중국 구파무협소설(1920년~1940년)들과의 관계를 고찰해 분석해야하는 과제가 남는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규봉,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동아일보』, 1934. 2. 2. ~ 3. 1.

2. 단행본 및 논문

구인환 엮음, 『유충렬전』, 신원문화사, 2004.

구인환 엮음, 『조웅전』, 신원문화사, 2004.

권혁래, 『한국무협소설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탐색』, 『한국문학과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08, 249-255쪽.

김재국, 『디지털 시대의 한국 창작 무협소설에 관한 고찰』,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김재국, 『한국무협소설의 존재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13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3, 197-218쪽.

김중수, 『역사소설의 발흥과 그 문법의 탄생』, 『한국어문학연구』 제5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87-313쪽.

대중문학연구회(편),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육홍타, 『시장 측면에서 본 한국 무협소설의 역사』,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이진원, 『한국무협소설사』, 채륜, 2008.

이치수, 『중국무협소설의 번역 현황과 그 영향』,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정동보, 『무협소설개관』,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musulwonjo junggukoepamoohyupjeon〉

Ko, Hoon(Yonsei University)

〈musulwonjo junggukoepamoohyupjeon〉 is the 1930's 'moo-hyup' novels in Korea. This novel has 'Koon Dam' novel's characteristic and has hero novel's story structure. This story has a the historical novel action imaging, but also has 'moo-hyup' novel's characteristic. Throughout the work appears a 'chivalry'. And shows the name of the martial arts and the shape of the martial arts. This is a feature of this work. Also explain about The 'Shaolin Temple'. It's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ing. These characteristics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ying Martial arts novels of the 1930's. A little more Supplement is needed. Also it will be able to reveal the beginning of The Korea 'moo-hyup' novel.

(Key Words : musulwonjo junggukoepamoohyupjeon, 'Koon Dam' novel, hero novel, 'moo-hyup' novel)

투고일 : 2013년 4월 30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5월 13~2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6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10일 게재확정